

지역분류	아시아 / 미얀마
보도일/기관명	2017. 1. 17.(화)/ PolicyTracker
제 목	미얀마, 신규 주파수 할당 준비
출처(URL)	https://www.policytracker.com/headlines/mystery-spectrum-award-in-myanmar

【개요】

- 미얀마 통신 관계부처 MCIT(Ministry for Communications, Information and Technology)는 신규 주파수를 부여할 것이냐, 어떤 대역을 어떻게, 어떤 과정으로 부여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주 상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함
- 지난 해 MCIT는 2017년에 700MHz, 850MHz, 900MHz 및 2100MHz 대역을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할당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

【주요내용】

- 미얀마 정부는 지난 주에 공식적으로 주파수 할당에 대한 발표를 했고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상세계획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나, 아직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발표할 것 같지는 않다고 시장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음
 - MCIT는 PolicyTracker에서 경매에 대한 상세계획에 대해 문의했을 때 기자회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, 주파수를 할당받았던 컨소시엄의 일부인 Viettel(Vietnamese state-backed organization)과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함
- 미얀마의 주파수 관련정보와 관련 이러한 2가지 출처로 봤을 때 심사제도(beauty contest)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임
- 미얀마에서 2013년에 처음으로 500백만 달러의 상업용 주파수를 구매한 Telenor의 대변인에 의하면, 그 당시 첫 가격은 300백만 달러였다고 언급함
 - 300백만 달러는 최저 가격이었고, 그 당시 Telenor과 Ooredoo가 신청하여 입찰 초기에 참가했고, 경쟁적인 입찰이 되면서 실제 입찰가격은 결국 높게 되었다고 언급함
 - 그러나, 대변인은 최근의 할당에 대해서 한 개 사업자에만 집중된 미얀마 모바일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사업자를 장려하도록 설계되었음에 따라 최저경쟁가격(reserve price)은 아마도 지불되었다고 보고 있음
 - ※ 한개 사업자는 미얀마 National Tele & Communications로써, 베트남 defence ministry-controlled Viettel(49%), Star High Public Company(28%)라 불리는 미얀마 Economic Corporation의 자회사, 미얀마 National Telecom Holding(23%)이라 불리는 11개 미얀마 telecom companies의 컨소시엄 등에 의한 합작회사임
- MCIT에서 주파수 할당에 대해 발표시, 신규 사업자가 적은 이유에 대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시장 접근이 늦어 더 적은 시장점유율을 가져간다고 언급했고, 이는 신규 사업자에 의해 지불되는 가격과 기존 미얀마 사업자인 Telenor 및 Ooredoo에서 지불되는 가격을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임
- 2013년 Telenor 및 Ooredoo에서 면허를 부여받았을 때, 미얀마 55백만 명에서 10%만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함
- GSMA는 올해까지 22백만명의 가입자를 예측하고 있고, 이는 약 40%가 늘어난 것으로 인구 커버리지는 2013년 12%에서 70%로 늘어질 것으로 예측했음

↑ 목차로 이동